

# 상처는 과거로, 희망을 향한 진행형

[제주시 북촌 어촌계] 툃짐 못 질 정도면 스스로 작업 포기

등록 : 2008년 05월 26일 (월) 16:11:29  
최종수정 : 2008년 05월 26일 (월) 16:11:29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 바다는 이제 비로소 봄이다. 물과는 한 계절이 늦게 오는 탓이다.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즐겁게 하는 낭만풍이지만 잠녀들의 표정은 좀 다르다. 그렇다고 조금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는 표정은 느긋할 정도다.

## △상처, 치유할 줄 아는 바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는 4.3 수난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주 4·3사건을 다룬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 바로 북촌리라면 이해가 쉽다. 4.3당시 마을을 잃고 인근 함덕리에 피난 갔다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 구남자구는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과부마을이라고 불릴 정도의 마을을 일으킨 것은 잠녀들이었다.

북촌 잠녀는 줄잡아 130여명. 물건이 좋을 때는 100명이 넘는 잠녀가 바다에 든다.

취재차 찾아간 날은 마침 참뭇 작업이 한창이었다. 잠녀 20여명을 세운 관리선이 기분 좋은 기계음을 내며 포구로 들어선다.

다려도가 코 앞까지 다가온다.

20여년 전만 해도 1.2.3동과 해동.한사동으로 바다를 나눠 작업을 했지만 바다는 늘 공평하지 않았다. 결국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북촌 바다로 한 바다를 만들었다. 그것이 꼬박 10년이 됐다.



우뚱가사리를 말리고 있는 모습

올해 72살인 이옥녀씨는 "15년 전만 해도 하루 조물면 툇이며 몸을 트럭으로 한 대 분량정도 작업했다"며 "돌만 뒤집으면 물건이 있던 다려도까지 테왁에 의지해 헤엄쳐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툇과 몸, 천초 작업을 하는 잠녀들을 수시로 물에 드는 잠녀 중 20~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 잠녀는 총대회의에서 결정된 임대료를 내고 미리 물건을 산다. 부지런히 작업을 하고 임대료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은 온전히 이들 몫이다.

김상종 어촌계장(49)은 "바다를 똑같이 나누기 보다는 일의 효율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스스로 툇을 맬 수 없다면 아예 작업에 나서지 말라는 게 잠녀들 사이의 불문율"이라고 했다.

### △여자로 태어나시민 한 일가는 동동 맥여 살려야주

지난 2월 당시 해양수산부는 2월의 어촌계로 북촌을 선택했다. 바다와 잠녀, 돌이 벗처럼 느껴지는 마을이라는 말을 새긴 홍보 포스터도 여기 저기 눈에 띈다.

희귀한 산호초에 어장 형성도 좋은 북촌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바다 여기저기에 생채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심지어 북촌 어촌계 차원에서 다려도와 방파제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마련했을 정도다.

해동 앞 천초바다는 비만 조금 내렸다 하면 물쓰레기 등과 함께 들이치는 소하천 때문에 형편없이 망가졌다.

다려도는 그런 북촌 어촌계의 믿는 구석이다.

다려도가 중심이 되다보니 뱃물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곳물질도 하지만 뱃물질을 못하는 날에는 아예 바다에 들지 않기로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한겨울에는 거의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려도 주변이 다 바다밭이지만 상군들은 더 멀리까지 별이를 위해 나선다.

북촌 어촌계는 생산되는 물건의 양을 기준으로 제주시 수협 내 세 번째 수준이다.



북촌포구에 있는 당

지난해만 소라 5000kg과 천초 1만kg에 오분자기와 해삼 등이 그럭저럭 돈벌이가 됐다. 3일 작업만 해도 일반직 공무원 한달 봉급에 맞먹을 정도였었던 적도 있었다. 김 어촌계장은 2자원 관리를 몇 년만 더 일찍 시작했어도 이 정도로 가물지는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바다만 밀고 있기에는 목구멍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만큼 사정이 나빠지자 어촌계가 나서서 홍삼이며 전복 종패를 뿌리고 청각 사업에도 손을 댔다.

그래도 바다가 등을 돌리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가두리양식장을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나서는 등 매는 쓰고 있지만 수산물직매장 등 직접적인 도움은 늘 아쉽다.

공유수면은 임대하기 어렵고 세금부담도 크지만 겨울 찬바람 속에 방파제에서 작업을 하는 노 잠녀들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안쓰럽다.

김 어촌계장은 2바다 자원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행정적 지원은 적은 편이라며 2잠녀들에 의존하다보니 별다른 수익사업 등을 구상할 수 없어 제자리를 지키는 것도 힘들 정도라 말했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동북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